

일동中 학부모사프론봉사단 발대식

경기도 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지정

일동중학교(학교장 배정환)는 4월5일 학부모사프론(chaperon)봉사지도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서실에서 40여 명의 학부모 사프론 지도 봉사단이 참석하여 봉사활동 시범교 운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후 11시에는 운동장에서 발대식을 거행했다.

경기도 전체 중학교 중 25개교가 봉사활동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며 포천에서는 일동중학교와 포천여자중학교가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단장 3-2 김소라 학생의 어머니 조순옥씨 등 총 50명의 학부모 사프론 봉사 지도단과 전교 447명의 학생을 특별 모둠 26개, 학급 모둠 30모둠 총 56개 모둠으로 조직하여 동아리 별 학부모 지도 봉사단원의 상견례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지므로 봉사활동의 의미를 새기며 동아리 별 계획을 세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 사프론 봉사단 총단장을 아래 9개 부단장과 각 학급별 단원으로 구성하여 체계적 조직을 이루었으며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원에서 열리는 봉사활동 시범교 학부모 사프론 봉사지도단 회의에 일동중학교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일동중학교에서 발대식을 통하여 본격적인 동아리 별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동아리 별 학생은 15명 내외로 조직되어 이동 및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학부모 사프론 봉사지도단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라 표정이 자못 진지하였으며 교사 와 학생,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발대식으로 그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다.

이날 학부모 사프론 지도 봉사단원으로 참여한 박부남 어머니는 "일동중학교에서 봉사활동 시범교 운영을 한다기에 걱정 반 호기심 반 참여를 했는데 연수를 받고 나니 봉사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새로웠으며 앞으로 있을 봉사활동이 기대 됩니다. 무엇보다 바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더 살펴보고



일동중학교는 4월5일 학부모사프론(chaperon)봉사 지도단 발대식을 가졌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겠다"고 느낌을 표현하였다.

일동중학교에서는 발대식 이후 시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학급 별 월 2만원을 성금 모금하여 월드비전의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15개 학급이 참여하여 국제적 구호활동에도 참여하며 매달 둘째 주 월요일-화요일을 111회살림 운동의 날로 정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한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모

여진 재활용품은 6월쯤 바자회 및 장터마당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조성해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봉사활동 후 학생들의 소감문 쓰기를 통한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도 봉사활동은 큰 교육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의 실천의지를 다지는바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하성환 기자 forme65@paran.com

학교예산 4천9백여만원 절감 효과 기대

포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학교용' 신설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이 포천시에 제안한 누진제 없는 학교 상수도 요금의 단일요금(890원)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28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의회의 수도급수조례 개정은 현재 가정과 소매점에서 적용 받는 가정용이나 목욕장업에 적용되는 대중목욕탕 보다 비싼 요금체계인 일반용으로 적용되는 학교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 적용 폐지를 제안한 포천교육청의 요청을 포천시에서 적극 수용하여 추진된 것이다.

개정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총 5단계의 학교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초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누진제 없는 신설 단일요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007년 11월 12일 입법예고를 거쳐, 2008년3월20일에 개최한 제41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한 것이다.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53개교(초 32교, 중 14교, 고 7교)가 있으며, 이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33개교에서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기념 부한 상수도 사용요금은 총 2억4천 5백여만원으로 이를 신설 학교용 요금인 890원을 적용할 경우, 향후

전년대비 20%의 절감 효과를 거두어 4천9백여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향후 포천시의 상수도보급 확대에 따라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20개교에서도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그 절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절감된 예산은 그간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교수-학습활동부분의 직접교육비로 교육정보화기자재, 교재교구 및 학습활동 부분 등에 투입되어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 살림살이에도 슬픔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의 영재교육 한단계 업그레이드 약속

경기도포천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개강식에서

경기도포천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원장 오정순)은 4월7일 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영재교육원생 56명과 학부모, 학교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 및 학부모, 학생들 대상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병행 실시하고 2008년 영재교육원 연간 교육일정과 학칙, 공개수업, 영재담당 교사와의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수학, 과학 수업 외에 영어와 발명수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영재교육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교사의 공개수업을 연간 12회 실시하고 담당지도교사와 상담을 통한 인성 및 진로지도에도 노력하여 학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이 어떻게 영재수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며, 학생 56명당 1명의 영재담임을 지정해 개별교육을 실시하여 담임교사와 영재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도록 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입학식에는 경기도과학교육원 박상선 연구사의 특강이 진행되었는데 연구사는 영재학생들에게 "첫째, 자신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수 없다. 둘째, 자신만의 특기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영재이다. 셋째, 자신에게 애정을 가져야 한다. 결국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포천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은 4월7일 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영재교육원생 56명과 학부모, 학교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또한 입학식에 참석한 포천초등학교 6학년 김범수 학생은 "영재교육원에 선발되어 자랑스럽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일꾼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수한 영재 강사를 최대한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으로 포천의 영재교육원에 선발되어 자랑스럽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일꾼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특 튀는 과학탐구 지도법! 즐겁게 배워요!

경기도포천교육청, 과학탐구대회 사전연수 개최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3월18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지도교사를 위한 사전연수를 가졌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사전연수는 과학탐구대회의 질을 향상시키고, 4월 과학의 달에 있을 학교 및 교육청 대회 참가학생의 탐구력을 향상시키며, 지도교사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포천관내 학교에선 과학업무 및 탐구대회 지도를 맡은 대부분의 교사가 신규교사이기 때문에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연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수는 글라이더, 고무동력기, 전자과학(브레드보드, 라인트레서), 볼로켓 등 6개 분야로 진행되는 자율연수이므로 학교에서 희망자가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강좌가 진행되었다.

특특 튀는 지도법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영복초 고영대 교사는 "평소에도 포천교육청 과학교육 행사에 참석하면서 후배교사들에게 과학탐구대회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좌에 참석한 양방초 이준혁 교사는 "수업이 끝난 후 자율적으로 준비물을 챙겨 손수 만들어 보고 강사님의 특특 튀는 지도법을 배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생각에 마냥 즐겁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포천교육청 김봉길 학무과장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과학 교육활동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천교육청의 과학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리는 역사 속의 사관처럼 일한다

경기도포천교육청 기록물관리담당자 교육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4월3일 포천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분청 직원들 및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의 기록물관리담당자에게 2008년 상반기 기록물관리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반기별로 기록물관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포천교육청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기록의 생산시스템에서 기록물의 편철, 생산현황보고 등의 정확한 기록물정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록물관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기록관리는 기록물을 단지 취합·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남겨주는 기록유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식 정보의 보존 및 전파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기록물의 생산등록에서 보존·폐기에 이르는 기록관리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는 업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수단이며, 업무과정을 투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리학교 운동장 최고

방학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장 잔디 공사는 어느새 끝이 나고, 지금 우리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은 푸른빛으로 바뀌었다.

우리 가산초등학교에 처음 들어온 1학년들은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나가 뛰어 노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다.

1학년은 초등학교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우리

가산초등학교의 운동장은 다른 학교와 달리 푸른빛이 난다는 점은 후배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나중에 커서도 우리 가산초등학교를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산초등학교가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길 바란다.



박 나 현 학생행기자 가산초 5년

함께 공부해요

위의지칙(威儀之則) ㉓

論語에 日 車中에 不內顧하시며 不疾言하시며 不親指리시다.

내고(內顧) 둘러보는 것. 친지(親指) 친히 손가락질함. 차(車) 수레기

눈어에 말하기를 "수레 안에서 둘러보지 않고 빨리 말하지 않으며 친히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하였다.

차(車)안서 신만하게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 남이 알아들지 못할 정도로 빠른 말로 말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것은 교양이 부족한 행동이며 또 남

의 의혹을 사기 쉬우므로 삼가야 한다.



양 주 승 본지 지면위원의 고문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수와셀

8. < 조 언 > : 네 자리 수의 연도나 호텔 방번호,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군사용 시간은 통상 두 자리씩 나누어서 말한다. 그러나, 2000 연도 이상은 그렇지 않고, 국제계약서나 수표금액 등은 풀어 쓰고 있다.

- * < 보기 > : (1)
- * 1950 년 : 이어나인틴인 필티(Year nineteen fifty.)
- * 6월 25일 : 준튀니 휫스(June twenty fifth.)
- * 1888 년 : 에이타틴인 에이리엇(Eighteen eighty eight.)
- * 2003 년 : 투따우센 트뤼(Too thousand three.)
- * 9022 호실 : 1) 룸나인오 더블투(Room nine O double two.)
- 2) 룸나이라 튀니투(Room ninety twenty two.)
- 3) 룸나인지제로 투투(Room nine zero two two.)
- * 511 호실 : 1) 룸화이브 원원(Room five one one.)
- 2) 룸화일 일레븐(Room five eleven.)

문의: 윤 중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심리상담 11

학교적응: 또래와 함께 놀지 못하는 아이- I

신학기가 되면서 아이들은 새 학년, 새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이 환경에서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에 적응하고, 선생님께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새로운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금방 여러 명의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며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치지만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지 않고 집단 속에 끼여들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그러한 친구들을 바라보기만 하거나 또는 어떤 한 가지 놀이에만 집중하고 혼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시며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경우 '해달라' 0

0와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 식의 지시로 아이들과 함께 놀 것을 지시하는 것은 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이 부족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성격 때문인 경우, 두 번째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서, 세 번째는 아이의 성격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조금 늦어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면상 첫 번째의 경우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모님 중에는 성격이 조용하고 혼자 있을 것을 즐기며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은 아이의 친구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것을 견디

기 힘들어합니다. 또한 우리아이를 점잖고 얌전하게 느껴 다른 친구들과 놀게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집에 오면 집을 어지르고 부수고 더럽혀 아이의 친구가 오면 저절로 싫은 얼굴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부모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일러주고 이러한 모습은 아이가 친구들을 멀리하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상담문의: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 정 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